

臺灣問題와 中·美關係 : 동아시아에서의 霸權確保를 위한 對立*

신 상 진**

◁ 目 次 ▷	
I. 序 論	III. 臺灣에 대한 中·美의 利害와 對立
II. 中國과 美國의 東北亞政策	IV. 結 論

I. 序 論

대만은 중세기부터 서양인에 의해 보물섬으로 불려짐으로써 줄곧 강대국들간 利害의 角逐場이 되어 왔다. 네덜란드인과 포르투갈인이 대만을 침공하여 지배해 왔으며, 17세기 이래 중국도 대만을 직접 관할하에 두고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 1895년 馬關條約으로 일본에게 주권이 이양된 이후 대만은 중국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일본 패망 이후 중국은 대만

* 이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 창립총회(1996. 2. 9)에서 발표된 “脫冷戰期 中·美關係와 臺灣問題”를 수정·보완한 것임.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에 대한 주권이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국은 1954년과 1958년 두차례에 걸쳐 국민당 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대만해협의 金門島와 馬祖島에 대해 대규모 포격을 가하는 등 대만에 대한 무력해방 의도를 한 시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정책 저지의 일환으로 대만과 안보동맹을 체결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견제해 왔다.

1970년대 들어 소련으로부터의 安保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경한 정책자세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중·미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만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제시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대만간 안보동맹조약 폐기, 대만내 미군 철수 및 미·대만간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관철시켰다.

비록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른 對대만정책 변화로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또한 1990년대들어 미·소간의 냉전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감소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 필요성을 제기시키게 되었고, 이는 결국 대만문제에 대한 중·미의 대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홍콩·대만의 주권 회복과 南沙群島 등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통해 동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쟁취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한 중·미간의 대립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국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세계 唯一 強大國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經濟發展을 기록하여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경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보 경쟁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霸權의 對立을 불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중·미관계의 향배는 미·일 및 중·일관계와 더불어 탈냉

전기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글은 1990년대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검토하고,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전망하고자 한다.

II. 中國과 美國의 東北亞政策

1. 中國의 東北亞政策과 對美政策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첫째,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개혁 개방정책에 유리한 周邊環境을 造成하고, 둘째, 역내에서 강대국으로서의 影響力을 維持·擴大하는 것이다.

우선 중국은 현재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政策目標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하에 평화로운 周邊環境을 造成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主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부정세의 안정 뿐만 아니라 대외환경의 안정이 요구된다고 인식하여 동아시아지역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이념과 체제적으로 상이한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관계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입각하여 全方位的 平和共存外交를 전개하고 있다.¹⁾ 중국이 南沙群島 영유권분쟁을 「閣置爭議, 共同開發」원칙하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과 아세안지역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도 중국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불식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江澤民의 방러(1994. 9)와 엘친의 방중(1996. 4) 등 고위지도자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약 4,400km에 이르는 러시아와의 邊境間

1)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4. 3. 24.

題를 대부분 타결짓고 안보협력을 다지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켰다.²⁾ 물론 현재 러시아는 對內 정치·경제문제로 인하여 대외문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러시아는 여전히 동북아시아에 대해 정치·군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러시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러시아내에 民族主義 勢力이 부상하게 될 경우, 중국에 대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불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³⁾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내 정치·경제적 不安定 상황이 중국의 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善隣友好政策을 강화하고 있다.⁴⁾

또한 중국은 과거 葛藤關係에 처해 있었던 인도와 베트남 등과도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안정적인 周邊環境을 造成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1962년 국경분쟁을 겪은 이래 인도와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베트남과도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부터 전쟁을 치르는 등 對立關係를 지속해 왔다. 인도와 베트남과의 적대관계 유지는 중국으로 하여금 안보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1995년 베트남이 「동남아국가연합」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한 이후 중국은 베

2) 江澤民과 열친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러시아는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中俄聯合公報,” 「人民日報」, 1996. 4. 26.

3) Steven Erlanger, “Russia and China Getting Together Agai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December 30–31, 1995; “러-中 관계 재정립 시도,” 「東亞日報」, 1995. 11. 20. 한편, 중·러간 안보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Alexei K. Pushkov, “A Russian-Chinese Alliance Doesn’t Look Likel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4, 1996.

4) 중국은 자국과 접경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국들의 회교도들이 신강 우그르 자치구내 회교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선린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1996년 4월 上海協定 체결을 통해 이들 국가들과 변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증진을 약속한 것도 안정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었다. “上海協定將是歷史性文件,” 「人民日報」, 1996. 4. 26.

트남이 중국에 대해 非友好的인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베트남에 대한 外交攻勢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5년 11월 두모이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를 초청하여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⁵⁾

한편, 1992년 8월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고 1995년 11월 江澤民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기조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분석된다. 또한 核武器 개발 등 동북아질서 안정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정책자세에 대해서도 중국은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지지입장을 수정하여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여 왔다.⁶⁾ 중국은 한반도에서 불안정 상황이 조성되면 韓國戰爭 당시와 같이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군사대결을 감수해야 하며 북한 주민이 대거 중국으로 流入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게 남북대화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社會主義體制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정치·경제·외교적 支援政策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⁷⁾ 중국은 남북간 긴장국면이 해소되고 북한이 경제난과 국제고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중국은 신장된 國力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대국으로서의 影響力을 擴大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5) 두모이의 방중시 중국과 베트남간 회담결과에 대해서는 “中越聯合公報,” 「人民日報」, 1995. 12. 2 참조.

6)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정책자세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同 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에게 미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도록 설득하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蜀聲, “中共鬭美一王牌—北韓核武,” 「爭鳴」, 1994년 5월號, p. 77.

7) 중국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5년 북한에게 약 1백만톤에 달하는 식량을 유·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으며, 1996년 5월에는 2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朝鮮日報」, 1996. 5. 4; 1996. 5. 23. 또한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제의한 4자회담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 주권을 회복함으로써, 역내문제에 대한 發言權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은 현재 권력승계의 정치적 과도기에 처하여 국가주권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시 하고 있다.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현지도부는 그들이 민족주의자이며 애국주의자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당과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유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7년 7월로 예정된 홍콩의 주권을 회복하고 금세기말까지 대만 문제를 「一國兩制」 방식에 의해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國際舞臺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1990년대 들어 「全方位 外交」 방침을 채택하여 外交領域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강대국으로서의 位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사전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21세기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최대 潛在 敵對國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화를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留保的 態度를 보여 왔으며,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⁹⁾ 중국은 일본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노력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방대한 財政赤字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매년 10% 이상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구입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증강 노력을 적극화 하고 있다. 물론 최근들어 중국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는 이유는 현 지도부에 대한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 군인들의 임금을 증액해 주기 위한 내부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¹⁰⁾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국가주권을 회복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

8) 「人民日報」, 1995. 8. 11.

9) "Japan Seeks to Soothe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 1996.

10) 중국이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주요 목적이 군인들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점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장 劉仲黎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人民日報」, 1994. 3. 11.

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도 완전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2년 2월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南沙群島와 釣魚臺列島를 중국영토로 규정하는 「領海法」을 제정한 바 있고, 해·공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진출 등 원거리 투사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1995년 10월 李鵬 총리의 라틴 아메리카 방문과 1996년 5월 江澤民 주석의 아프리카 6개국 방문을 통하여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관계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대만의 외교적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으며, 1995년 12월 쿠바의 카스트로 대통령을 초청하여 社會主義 宗主國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多邊 外交 정책도 지역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장기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정책중, 중국은 2010년 이전까지는 현상유지 지향적 정책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996년 3월 8기 전인대 4차회의시 통과된 「9.5계획과 2010년 장기 발전목표 개요」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¹¹⁾ 중국은 적어도 2010년까지는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완성을 통한 경제발전에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현재와 같은 현상유지의 대외정책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국의 對美政策도 대내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 과 역내 영향력 확대라는 두가지 목표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역내에서 假想敵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霸權政策을 견제하고자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 경제 및 안보적 차원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¹²⁾

11) 2010년 장기 발전 개요 전문은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計劃和2010年遠景目標概要,” 「人民日報」, 1996年 3月 20日 참조.

12) 중국이 미국에 대해 협력과 견제의 이중적인 정책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진, 「鄧小平 사후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 47~54 참조.

미·소 兩極體制 붕괴로 러시아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약화됨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戰略的 協力關係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과거보다는 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내 경제발전과 域內 安定 및 對日 牽制 등을 위하여 여전히 미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국에 대해 選別的으로 妥協政策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의 대미 경제의존도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 할수록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對美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최근 중국이 關稅率을 대폭 引下하는 등 시장개방 확대 조치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구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등 동북아에서 유일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경제하면서도, 주변국과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對美關係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역내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중국과 선린관계를 강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미국의 對中 인권개선 및 무역역조 시정 요구 등에 강경한 자세를 보일 경우 미국이 대만을 중국 견제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³⁾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내 인권문제나 대만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깊이 간섭하지 않는 한 미국과 갈등관계를 심화시키기 보다는 가능한 협력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對美關係를 改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江澤民을 비롯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미관계가 주권존중 및 상호 내정

13) 중국이 파키스탄에 M-11 미사일기술을 수출하는 등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준수 약속을 파기하자 미국은 對中 첨단기술 수출을 중단하고 대만에 하푼 미사일 41기를 수출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3. 8. 27; 張雅君, “當前中共對美國政策的基本原則與現實利益,”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6期 (1993. 6), pp. 74~75. 특히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미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David Zweig, “Clinton and China: Creating a Policy Agenda that Works,” *Current History*, vol. 92, no. 575 (September 1993), p. 250 참조.

불간섭원칙을 규정한 3개의 커뮤니케(「上海公報」, 「關係正常化公報」 및 「8.17公報」)의 정신에 기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1996년 1월 미국이 李元簇 대만 부총통의 미국 통과비자를 발급한 데 대해 중국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6월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시와는 달리 李元簇 부총통은 중국을 자극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식 행사나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강경하게 나타나지 않았다.¹⁴⁾

요컨대, 중국은 중국내 人權問題와 臺灣問題 등 주권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는 입장이나, 地域安定문제와 經濟·貿易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 美國의 東北亞政策과 對中政策

脫冷戰時代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經濟安保를 최우선 외교정책 과제로 설정하여 미국의 대외공약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안보를 핵심 대외정책 목표로 삼게 된 주요 이유로는 러시아와 「평화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고 經濟競爭이 탈냉전시대 국가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냉전시대 미국이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와 軍備競爭에 몰두하여 미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경제가 침체국면에 처하게 된 것도 경제외교를 강화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련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安定과 平和가 세계질서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더 이상 군사비를 經濟建設에 부담이 될 정도로 지출할 필요성이 감소되게 되

14) 1995년 6월 미국이 李登輝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가한 이후 중국은 1979년 이래 최초로 주미 대사를 소환하고 고위 지도자 상호 교환 방문계획을 취소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자세를 취하고, 대만에 대해서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위협을 가하였다.

었다.

미국은 동북아에 대해서도 경제안보를 중요한 政策目標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貿易赤字를 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에서 매년 약 1천억달러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국가들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은 市場開放 압력을 가하고 불공정 무역관행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996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경제계 등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강화 필요성을 갖고 있다.

둘째, 미국의 국익에 상반되는 분쟁을 가급적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분쟁에 적극 개입하여 승리로 이끌기 위해 막강한 軍事力을 維持하려 하고 있다.¹⁵⁾ 미국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國際秩序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지역분쟁이 세계 도처에서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분출될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막강한 軍事力을 계속 유지하고,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가 地域安定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 안보정책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NATO를 동유럽 지역으로 확대시키고 핵확산금지조약을 무기한 연장시킴으로써 美國 主導下에 세계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이 경제적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 체제의 不確實性和 냉전요소 잔존 등이 언제든지 지역불안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대외고립을 타개하고 體制危機를 외부로 돌리기

15) 이와 관련,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지역분쟁에 동시에 대비한다는 win-win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분쟁 대응전략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군사적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해 핵개발 위협을 자행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등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질서에 심각한 威脅要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일본간의 대외 영향력 확대경쟁을 완화시킬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동북아질서의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0만명의 미군을 계속 잔류시키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미국은 동북아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역내 霸權勢力 출현을 막고 지역 군비경쟁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간주하고 있다.¹⁶⁾

셋째,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民主主義와 市場經濟體制 확산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본 가치와 부합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國家安保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독재국가들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탈바꿈 할 때 지역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며, 軍備減縮 등 대외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현존 社會主義 국가들의 점진적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經濟支援 등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확산을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는 점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體制變革을 적극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일부 동북아 지역국가에서는 여전히 人權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민주화도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주요한 목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인권개선 압력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개방시켜 '연착륙'을 돕고자 하고 있는 것도 중국과 북한의 體制變化를 誘導하기 위한 전략차원으로 볼 수 있다.¹⁷⁾

16) Joseph S. Nye, Jr., "The Case of Deep Engagement," *Foreign Affairs*, vol. 74, no. 4 (July/August 1995), pp. 90~91.

미국의 對中政策은 탈냉전시대 세계정세의 변화와 중국내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내 여론 동향을 고려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地域安定에 대한 중국의 순기능적 기여를 유도하며, 중국내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중국 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촉진시키고,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미·중간 무역역조를 해소하고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이 地域安定 維持에 기여할 수 있는 세력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정책 기조는 냉전종식 이후에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유지, 전면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유지 등을 위해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을 지역 안정유지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 옹분의 代價와 補償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⁷⁾ 이와 관련, 1993년 9월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경선 시기부터 중국에 대해 취해온 壓力政策을 포기하고 對話政策을 채택하여 미국 고위 지도자의 중국 방문을 허용하는 등 대중관계 발전을 적극 모색해 왔다.¹⁸⁾ 특히 미국은 鄧小平 사후의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에서 軍部の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감안하여 중국 군부와의 교류 확대를 적극

17) 중국은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평화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和平演變戰略)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왔다. 屈全繩, 劉紅松 主編, 「和平演變戰略及其對策」(北京: 知識出版社, 1990), pp. 88~94; 鍾河石, “美國人權外交可以休矣,” 「人民日報」, 1996. 4. 1; 任言實, “借人權反華走入死胡同,” 「人民日報」, 1996. 4. 25.

18) Henry Kissinger, “Four Proposals to Ge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ff Their Collision Cours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ly 24, 1995; Kenneth Liebertha, “A New China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4, no. 6 (November/December 1995), p. 43.

19) Daniel Williams, R. Jeffrey Smith, “New Clinton Policy : Warm Up to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ovember 3, 1993.

모색해 왔다. 미국이 중국 군부와와의 交流·接觸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외 強硬姿勢를 완화시키려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미 중간선거에서 대만에 대해 동정적인 共和黨이 압승을 거둔 이후, 미국은 「中國威脅論」을 강조하면서 중국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미국의 최대 위협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5월 강대국들간 핵확산금지조약 연장 합의 직후에도 중국이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군사력 增強政策을 지속하고 南沙群島 등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 추세를 지속한다면 21세기 초에는 세계 최대 經濟大國으로 부상하여 미국의 經濟 및 安利益에 심대한 위협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外交攻勢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여지를 封鎖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1995년 과거 중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베트남과 국교를 정상화하였으며, 1979년 단교 이래 최초로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가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4년 10월 북·미 기본합의서 타결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接近政策도 중국 견제전략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을 중국의 影響圈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둘째, 미국은 중국내 人權伸張을 도모하고 民主主義를 확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 사회주의 體制의 變革을 유도하는 데 대중정책의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미국의 民主黨 정권은 의회와 여론의 압력으로 대외 인권신장을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이후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대중 최혜국대우 연장시 중국내 인권문제와 연계시키겠다고 경고하는 등 인권개선을 촉구하여 왔고, 「자유 아시아 방송」을 설치하여 중국에 자

20) 신상진, 「鄧小平 사후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p. 71.

유와 민주사상을 전파할 것임을 밝혀 왔다.²¹⁾ 특히 1995년 12월 중국이 대표적인 반체제인사인 魏京生에 대해 14년형을 구형하는 등 內部團束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무부는 1996년 3월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여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1996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문제 결의안을 상정하여 중국의 인권개선을 촉구하였다.²²⁾

그러나 1994년 5월 클린턴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연장하면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행정부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강압정책보다는 參與政策(engagement policy)이 더 바람직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²³⁾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抑壓政策은 중국내 保守派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의 대미 敵對感을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중국내 인권개선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중국내에서 私營企業이 발전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국사회의 多元化和 民主化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994년 5월 27일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과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漸進적으로 중국의 變革을 유도한다는 정책기조하에, 중국내 인권문제와 관계없이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연장한다는 政策宣言을 발표한 바 있다.²⁴⁾ 또한 클린턴은 1995년 10월 뉴욕에서 개최된 江澤民 중국 國家主席과의 회담시에도 중국내 인권문제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21) Robert A. Manning, "Clinton and China : Beyond Human Rights," *Orbis*, vol. 38, no. 2 (Spring 1994), pp. 195~196.

22) "US Urged to Give Up Anti-China Draft Resolution at UN Commision," *FBIS-CHI-96-003*, January 4, 1996, p. 1 ; "西方借人權干涉中國內政再遭失敗," 「人民日報」, 1996. 4. 24.

23) Bill Clinton, "To Advance the Common Interest in a More Open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 1994 ; Jaffery E. Garten, "How to Accompany the Rise of a Mighty Chin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anuary 16, 1996.

24)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 연장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정책 성명문 전문은 「연합통신」, 1994. 6. 1, pp. 英 1~9 참조.

자제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한 바 있다.

셋째, 대내 經濟回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시장개방을 촉진하여 중국과의 무역적자폭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중국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 더욱 긴밀하게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적 역동성을 중시하여 중국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거대한 潛在市場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6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중·미간 交易規模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연간 300억달러를 넘는 무역역조 문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 교역패턴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6년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바, 미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일본과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에 대해 시장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하고 知的財産權 보호 및 불공정 무역관행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지적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2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클린턴 행정부의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거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중국이 국제경제체제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원칙적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각종 불공정 무역관행을 철폐하지 않고 國際規範에 상응하는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경제가 이미 크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開發途上國 지위로서가 아니라 개발국의 지위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이 세계 自由貿易 秩序를 위협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다.

III. 臺灣에 대한 中·美의 利害와 對立

1. 臺灣의 臺灣화와 臺灣問題의 國際化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行政單位에 속한 일개 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 1,800만 명에 이르는 대만 原住民들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국민당 정부를 일본 제국주의와 같은 점령군으로 간주하고 대만이 중국과는 별개의 獨立國家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왔다.²⁵⁾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을 1980년대 3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一國兩制」방안을 통해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해 왔다.²⁶⁾ 중국은 유엔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대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全方位外交」방침에 입각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活動空間을 축소시켜 왔다. 중국은 제3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할 때 언제나 중국(中華人民共和國)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 合法政府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만 孤立化 政策으로 인하여 대만은 국제무대에서 정식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겨우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31개 약소국과만 정식 外交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약소국이 대만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대만의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답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만의 國際的 地位 확대를 모색하고 심

25) 여기서 대만 원주민은 1940년대 중반 중국 대륙이 공산당에 의해 점령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26)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 第二卷(北京:人民出版社, 1983), pp. 203~237.

지어는 대만의 독립방안까지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대만의 민주화를 주장해 왔던 대만의 在野人士들은 이러한 여론을 결집하여 1986년 民進黨을 창당하였다. 민진당 추종자들은 대부분이 대만 원주민 출신들이어서 심정적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경제적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²⁷⁾ 이러한 판단하에 민진당 지도부는 1991년 이래 國號를 대만공화국으로 변경하고 대만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민진당의 대만 독립주장이 대만 주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1992년 立法院 선거와 1994년 地自制 선거를 통해 확인되었다.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기존의 18석에서 51석으로 의원수를 늘렸으며,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진당 인사인 陳水扁이 대북시장에 당선되었다. 1996년 3월 총통선거에서 통일보다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국민당 후보 李登輝가 54%에 달하는 지지를 받고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인 彭明敏이 21%의 지지를 획득하는 등 최근 대만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결과는 대만의 지위 확대를 바라는 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집권 國民黨도 대만정치 정세의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88년 蔣經國 총통 사망 이후 국민당 지도부내에서 대륙출신 당원들의 발언권이 약화되고 李登輝 총통과 連戰 부총통 등을 비롯한 대만출신 인사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국민당내에서 대만계의 부상은 대륙계의 소외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국가통일을 강령으로 내건 「新黨」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新黨」은 李登輝가 국민당을 대만화시키고 대만의 독립을 획책함으로써 중국과 대만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²⁸⁾ 국민당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류와 비주류간 대립의 핵심도 국민당의 핵

27) 대만 民進黨 내에서는 대만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세력(彭明敏을 중심으로 하는 建國會 세력)과 점진적 독립정책을 선호하는 세력(許信良 등 美麗島派)간의 노선대립이 전개되고 있다.

28) 대만 「新黨」의 부상과 이에 따른 대만내 정치변화 방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상진, “흔들리는 대만의 국민당,” 「한국인」, 1993년 10월호, pp. 80~84; “Taiwan Politics: Still Muddling, not yet Through,” *China News Analysis*, no. 1499 (December 15, 1993), pp. 1~9 참조.

심 정책노선을 중국과의 통일에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현상유지 또는 대만 독립에 두어야 하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李登輝 총통을 위시한 국민당의 주류파는 조기 통일보다는 現狀維持를 우선시하고 있다. 국민당 정부는 ‘三民主義 統一中國’ 구호를 더 이상 역설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프랑스로부터 F-16 전투기와 미라쥬 2000 전투기 등 첨단무기 구매를 서두름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미국과 동남아 및 라틴 아메리카 등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대만문제를 국제화 하고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지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특히 대만은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동남아와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에 대한 경제외교(銀彈外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와 유엔 등 國際機構 가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민진당에 대한 대만 주민들의 지지와 국민당의 대만화가 반드시 대만의 독립 지지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대만 주민들은 대만이 중국에게 흡수될 경우 대만에서 資本主義體制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를 박탈당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만 주민들은 중국과의 急進의인 統一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대만 주민에 상응하는 정도로 향상되고 중국내 정치발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통일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 1〉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대만 독립을 적극 지지하는 대만 주민들의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만이 독립을 선포할 경우 예상되는 정치·경제·군사적 손실과 위협이 막대하다는 판단하에, 대부분의 대만 주민들은 獨立宣布를 반대하고 당분간 현상유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²⁹⁾

1996년 3월 대만에서는 대만 역사상 최초로 대만 주민에 의해서 총통이 직접 선출되었다. 1949년 蔣介石 총통이 대륙에서 대만으로 건너온 이래

29) 대만 주민들 중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은 10~20% 정도에 불과하나, 현상유지 지지 비율은 50~60%를 상회하고 있다.

〈표 1〉 대만주민의 대만독립 지지도 변화추이

조사시기	1990.6	1991.6	1992.10	1993.11	1994.4	1995.1	1996.1
지 지 율	12.0	12.2	15.8	20.0	27.0	20.1	10.0

자료 : 「中國時報」, 1990.7.1, 1991.7.1, 1992.11.1, 1993.12.1, 1994.5.1, 1995.2.1, 1996.2.1.

현재까지 약 45년의 역사 동안 대만은 중국에 의해서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대만 총통이 대만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대륙에서 옮겨온 종신직의 國民大會 代表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만의 총통은 대만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의 臺灣化가 심화될 것이다. 물론 李登輝 총통은 5월 20일 새로운 총통에 취임한 이후 지난 3월 대만해협에서 일어난 군사긴장에 따른 내부 정치·경제적 타격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강력한 내부 지지기반 하에 국제지위 확보 노력을 적극화 할 가능성이 있다.³⁰⁾

2. 臺灣의 臺灣化에 대한 中國의 對應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國家主權 문제를 중요시 한다. 1840년 영국과의 阿片戰爭에서 패배한 이후 중국은 약 100여년 동안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왔다. 이로써 과거 동아시아에서 향유해 왔던 中華의 優越感이 사라지고 오직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국민들의 소망이 되었다. 근대 중국의 경험은 중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中國 內政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하고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의 主權回復에 큰 관심을 보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統一問題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상위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지도자중 국가통일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그는

30) 李登輝 총통은 취임사에서 중국과의 화해에 주력할 것이나, 대만의 국제지위 확대 노력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李登輝 총통의 취임사 全文은 「中國時報」, 1996. 5. 20 참조.

곧 매국노(漢奸)로 간주되고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게 된다. 특히 지도자 교체의 정치적 과도기나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을 경우에는 통일문제가 정치 지도자의 주요 과제로 부각된다. 1958년 毛澤東이 金門島에 대한 포격을 단행하여 대만을 무력 해방시키고자 한 것도 무리한 大躍進運動과 소련과의 관계악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도 1978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대만통일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그가 민족주의자라는 점을 공산당 내외에 인식시킨 바 있다.³¹⁾

중국은 현재 江澤民으로의 권력승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산당 중앙의 통제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국민들은 공산당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공산당에 대한 국민들의 信賴와 支持度가 약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중국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통합 이데올로기로서 대체시키고자 하고 있다.³²⁾

이와 같은 중국의 내부정세 변화는 중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홍콩과 대만의 주권문제에 대해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江澤民과 李鵬 등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조국통일 완성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³³⁾ 중국 지도부는 國家統合이라는 민족주의적 구호를 통해 중국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자신들이 민족주의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의 정치상황 변화와 대만의 대외공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중국내 정치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

31) 이에 대해서는 中國國民黨革命委員會中央委員會祖國平和統一促進委員會 編, 「鄧小平論祖國統一」(北京:團結出版社, 1995), pp. 1~10 참조.

32) 姚眉平, 楊柏榕, 「論鄧小平愛國主義思想的基本特點」, 「求是」, 1995年 第22期 (1995. 11. 16), pp. 20~25; Nayan Chanda, Kari Huus, "The New Nationalism,"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9, 1995, pp. 20~26.

33) 江澤民, 「爲促進祖國統一大業的完成而繼續奮鬥」, 「人民日報」, 1995. 1. 31; 江澤民, 「共同締造更美好的世界」, 「人民日報」, 1996. 1. 1.

으로 보인다. 1992년 중국이 북한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한 것도 대만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1992년 1월 리투아니아와 領事級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지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당시 대만의 최대 외교상대국이었던 한국과 수교를 결정함으로써 대만문제의 國際化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⁴⁾ 또한 중국이 1993년을 「東盟年」으로 설정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외교공세를 강화하고 1996년 5월 江澤民이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6개국을 방문한 것도 동남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대만의 진출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가 작용하였다.

대만에서 獨立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대만의 國際舞臺 진출 노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1994년 이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강경자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앞의 〈표 1〉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994년 대만내 독립 여론이 27%로 1990년 이래 최고조에 달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하여 대만 관리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대만의 國際機構 가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은 1994년 이래 臺灣海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만에서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고 위협하여 왔다.³⁵⁾ 중국이 1994년 「東海4號」와 1995년 「東海5號」 등 일련의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대만독립 움직임에 대처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욱이 1995년 6월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1995년 11월에는 대만 침공을 전담할 「南京戰區」를 부활시켜 3군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대만해협에서 긴장분위기를 고조시켰다.³⁶⁾

특히 중국은 1996년 3월 대만 總統選舉를 전후로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34) 嚴景, “臺灣當局違背一個中國原則舉證,” 「瞭望」, 1995年 第25期 (1995. 6. 19), p. 22.

35) 실제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대만에서 독립움직임이 구체화 될 경우 무력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遲浩田談解決臺問題,” 「文匯報」(香港), 1995. 8. 1.

36) “南京戰區三軍聯合作戰演習成功,” 「人民日報」, 1995. 11. 26.

발사훈련, 해공군 합동 훈련 및 육해공 상륙훈련을 실시(3. 8~25)하여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하였다. 중국은 대만 총통선거에서 李登輝 총통의 득표율을 낮추고, 민진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독립에 따르는 대가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대만 지도자들과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한편,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배제시키고자 하였다.³⁷⁾ 1997년 홍콩 주권의 중국 반환 이후 대만에서 독립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江澤民 등 중국의 현 지도부는 대만에 대한 武力威脅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다.

3. 臺灣問題를 둘러싼 中·美의 對立

대만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外貨保有庫를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대만은 地政學的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부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동아시아 지역국들간 軍備競爭을 불가피하게 하는 등 地域不安定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안정유지를 위한 미국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장차 중국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잠재적국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미국은 1993년말 이래 「中國威脅論」을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국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을 자극해 왔다. 헌팅턴에 의해 발표된 「文明衝突論」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⁸⁾ 더욱이 1995년초 미국은 중국

37) 중국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과 대만문제에 대한 외세의 개입을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李鵬,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計劃和2010年遠景目標綱要的報告,” 「文匯報」, 1996. 3. 6.

이 홍콩과 대만의 주권을 회복하고 南中國海에 대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구도 속에서 대만은 중요한 據點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1994년 9월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관계격상 정책을 채택한 이래 미국은 대만 고위 관료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고 대만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등 대만에 대한 支援政策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의회도 「외국원조법안」을 통과시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제공을 합법화한 「臺灣關係法」이 「8.17公報」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³⁹⁾ 특히 미국은 1979년 국교단절 이래 최초로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가하였다. 비록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는 李登輝 총통의 모교인 코넬대학 방문을 위한 私的 형식을 띤 것이었지만, 국제사회에 대만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다. 나아가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對대만정책을 대만의 독립을 자극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간주하고 미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정책이 「上海公報」, 「關係正常化公報」 및 「8.17公報」 등 중·미간 기합의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⁴⁰⁾ 특히 중국은 1995년 6월 미국이 李登輝 대만 총통의 방미를 허용하는 등 중국 견제정책을 노골적으로 전개하자 遲浩田 국방부장 등 고위 지도자의 방미계획을 철회하고 李道豫

38)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 *Foreign Affairs*, vol. 72, no. 3 (Summer 1993), pp. 22~49; 謝益顯, "對文明之衝突論的剖析," 「國際問題研究」, 1994年 第2期 (1994. 4), pp. 43~44; 王緝思, "渴制還是交往," 「國際問題研究」, 1996年 第1期 (1996. 1), p. 3.

39) 「8.17公報」는 1982년 미·중간에 합의된 공동성명으로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점차 축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0) "江主席談中美關係,臺灣問題,中國發展前景," 「人民日報」, 1995. 10. 18; "江澤民會見布什," 「人民日報」, 1996. 1. 11.

주미대사를 소환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1995년 6월 李鵬 총리와 12월 劉華清 당중앙군사위 부주석 그리고 1996년 3월 喬石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의 안보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패권정책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1996년 3월 미국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만해협 부근에 항공모함을 파견함으로써 중·미 관계는 1979년 국교정상화 이래 가장 소원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진입시킬 경우 중·미간에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중·미관계가 냉전적 갈등관계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⁴¹⁾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대만의 국제지위 확대 노력 지지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동아시아에서 중·미간의 대립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IV. 結 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시기 동북아에서 중국과 미국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의 主權回復과 남사군도 영유권 확보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유지 등을 통해 과거 동아시아에서 향유해 왔던 영광스런 中華秩序를 재현하고자 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붕괴 이후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 및 베트남과 북한 등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진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擴大政策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호 상대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潛在 敵國으로 간주하고 있다.

41) 탈냉전기의 중·미관계가 냉전적 적대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David Shamba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A New Cold War?" *Current History*, vol. 94, no. 593 (September 1995), pp. 241~247 참조.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간의 緊張關係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문제를 內政問題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대만을 통일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만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진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과 대만관계에 緩衝役割을 해 온 홍콩이 1997년 중국에 반환되고, 이에 따라 대만에서 獨立輿論이 더욱 지지를 얻게 될 경우 대만문제는 중·미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統一攻勢를 강화할 것이며, 미국은 대만문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미관계는 탈냉전기 동북아질서의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만문제는 分斷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민족에게 깊은 관심을 유발시키는 문제이다. 특히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미간 대립이 심화될 경우, 이는 한반도의 安定維持와 平和統一에 결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국간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중·미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미간의 경쟁구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실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4자회담 실현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곤란하게 될 수 있다.